

企業과危險管理



宋 基 澈
〈高麗大教授·經博〉

目 次

1. 人生과 危險
2. 外國의 危險管理
3. 企業 危險管理
4. 危險管理 計劃
5. 企業危險의 保險化
6.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

1. 人生과 危險

70年代부터 우리 周邊에선 從前과는 여러 모로 다른 緊迫感을 주는 語彙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不確實性의 時代라든가 斷絶의 時代 혹은 危機의 時代등이 바로 그 一例이다. 率直히 이

야기해서 不確實性이나 危機와 같은 일이 存在 않았던 時代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또 그 存在가 어떤 요인이든, 즉 國家이거나 企業 혹은 家族 또는 個人의 경우라 할지라도 危險이란 늘 存在하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不確實性이란 어느 時代 어느 存在에도 있는 것으로서 다만 最近에 그것이 크게 意識되고 있는 것은 社會的, 經濟的 變化뿐만 아니라 技術的 變化가 굉장히 困難해서, 모든 面에서의 豫測 可能性이 극히 限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現在의 社會的, 經濟的, 技術的 變化가 急速化, 多樣化, 斷續化하고 있어서, 過去, 現在, 未來의 連續이 不安定的이고 또 循環的, 周期的도 아니다. 즉 未來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不安한 時代에 우리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營爲하는 家庭의 消費活動이나 企業이 營爲하는 生産活動에는 항상 어떤 形態로서 인간의 不確實性은 介在하게 마련이다. 이들 不確實性은 그의 對象과 認識主體에 따라서, 危險(risk), 不測事態(contingency), 危機(crisis)이라는 概念으로 把握된다. 이와 같은 不確實性에 對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不確實性의 根源인 環境이나 其他 要因을 探究 分析하고 그의 變化의 豫測과 方案을 模索하면서 앞날의 危險을 制御하도록 努力하게 마련이다. 즉, 사람들은 自己 目的의 達成을 위해서 阻害要因으로 되어 있는 不確實性을 除去하기 위해서 計劃的 行動이나 管理活動에 着手하게 된다.

이에 登場하는 것이 危險管理(risk management), 不測事態對應計劃(contingency plan) 혹은 危機管理(crisis management)라고 한다. 하여간 危險管理를 廣義로 解釋한다면 不測事態對應計劃이나 危機管理도 모두 이에 包含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危險管理란 人間이 人間の 危險豫知本能에 依據해서, 危險을 制御하고 危險에 對備하기 위한 管理活動이며, 危險의 合理的 費用化的 活動이라 할 수 있다.

2. 外國의 危險管理

危險管理는 美國에서 發展한 것이지만, 獨逸에서는 리지코 포리티크(Risiko-politik, 危險政策)이라고 해서, 第1次 世界大戰以後의 惡性인플레에 대한 企業防衛手段으로서 企業의 經營政策은 어떻게 展開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疑問提起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인플레對策이나 技術革新에 대한 危險防止, 價格政策, 自己金融, 商去來 등과 關聯시켜서 企業危險을 論하고, 經營者는 이에 어떻게 對處해 나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充分한 理論的인 展開를 하고 있다.

企業危險에 對處하는 經濟活動이 經營政策이지만 企業危險에는 各種의 性格이나 發生上의 差異가 있기 때문에, 危險政策에는 各各 各危險에 對應하는데 妥當한 政策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危險政策의 中心的 政策으로서는 保險政策이 되고 있다. 물론 危險政策의 中心課題가 保險政策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單純히 測定 가능한 危險에 關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不可測性의 危險에 대해서는 別途의 危險政策이 手段으로서 活用되어야 한다. 즉 危險의 制限, 危險의 分散, 危險의 補償, 危險의 分割, 危險의 防止, 危險의 讓渡, 危險의 遮斷, 危險의 相殺등이 있다.

위에 든 危險政策手段中 어떤 것을 擇할 것이냐는 個人, 企業, 國家등 各存在의 環境, 能力,

哲學등이 混合되어서 달라지며, 企業의 경우는 業態 規模, 現狀, 經營者의 思考方式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여간 美國에 있어서의 危險管理는 獨逸의 危險政策이 인플레에 대한 企業防衛에서 出發했던 것과는 달리, 經營合理化에서 오는 費用節約이란 點에서 出發하고 있다. 즉 어떻게 해서 保險料支出을 抑制하고, 合理的으로 保險을 「카버」할 수 있느냐에서 出發하여, 그것이 점차 擴大되어 第2次 世界大戰以後에는 企業危險에 대한 全般的인 管理로 移行하려고 하고 있다.

1929년에 大恐慌이 일어나 企業防衛를 위한 危險管理運動이 일어나, 1931년에는 美國經營者協會(AMA)의 大會에 있어서, 企業危險管理의 重要性을 確認하고, AMA內의 獨立部門으로서 保險部門이 設置되었다. 이 保險部門은 年 2회의 會議을 열고, 保險管理 뿐만 아니라 그의 研究와 指導를 하였다. 이리하여 企業危險의 管理를 擔當하는 사람을 리스크·매니저라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1932년에 그들의 組織을 結成, 情報交換, 管理技術向上에 努力하였다. 이 運動이 發展하여 1975년에는 危險 및 保險管理協會(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가 結成되어, 現在 全美 各企業의 리스크·매니저를 中心으로 多數의 會員을 갖고 情報交換, 會議, 出版, 세미나를 통해서 活潑한 活動을 하고 있다.

美國에서의 危險管理는, 1930年代에 費用管理의 思考에 立脚한 保險管理로서 擡頭되어 있다. 그것은, 디프레下的 企業防衛가 發端이기는 하지만, 이 以外에 自動車, 航空機의 發展에 依據하는 바도 크다. 즉 이들의 發展과 技術革新, 石油化學의 發展, 컴퓨터導入은 企業規模를 擴大하고 資產價値를 膨脹시켰다. 또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 強調되고, 産災事故등 事故에 대한 賠償責任도 점점 無過失責任의 樣相을 띠고, 賠償額도 急上昇했다.

지금까지의 危險管理는 付保 가능한 危險을

中心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企業防衛上 이것만으로는 不充分하며, 原子力事故, 公害, 製造物責任等 保險에 부칠 수 없는 것의 困難한 危險에 대한 管理에 關心이 높아지게 되었다.

危險管理는 各種 危險을 對象으로, 最少의 費用으로 危險의 結果로 發生하는 不利益을 最少化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管理이다. 이 경우 危險과 關聯되는 個別經濟主體에 따라, 危險의 內容과 管理도 달라진다. 즉 家計, 企業, 國家로 分類된다. 이들에게 共通的인 危險도 있으나 그들에게 各各 特有한 危險도 있다. 이에 家計 危險管理, 企業危險管理, 國家나 公營事業의 危險을 管理對象으로 하는 官公廳危險管理로 區別할 수 있으나 그 中心은 역시 企業危險을 對象으로 하는 企業危險管理임은 더 말할 必要도 없다.

3. 企業危險管理

一般的으로 企業은 정도의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社會的 公器라든가 社會的 制度이기 때문에, 企業은 倒産되어선 아니 될 社會的 存在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企業은 倒産危險을 제쳐가면서, 倒産과 關聯되는 千差萬別의 危險에 사로잡히면서 經營을 하고 成長과 倒産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危險政策, 危險管理는 우선 不確實성을 除去하는 것, 즉 損害의 發生 自體를 除去 防止하는 일이다.

除去 또는 防止할 수 없을 때에는 費用化가 圖謀된다. 즉 將來의 不確實하고 巨額의 損害 發生의 可能性을, 現在의 確定的인 小額의 費用으로 換置한다는 思考方式이 危險管理의 根本的 發想이다.

危險이란 英語로는 리스크(risk), 페릴(peril), 하자아드(hazard)등의 用語가 있지만 우리 말로는 모두 危險으로 翻譯된다. 그러나 危險이란 用語의 뜻은

① 事故 發生의 可能性, 또는 事故發生의 不

確性의 뜻으로, 例를 든다면 火災나 爆發등의 發生 可能性을 危險으로 認識하는 것으로 英語의 risk에 해당된다.

② 事故 그 自體이다. 例를 든다면 火災, 爆發, 衝突, 死亡등 偶發的인 災害나 事件이다. 「危險이 發生했다」고 하는 경우의 危險이 英語의 peril에 해당한다. 이것에 不可測性, 突發性, 異常性, 巨大性, 持續성과 같은 것에 重點을 두게 되면 contingency라든가 crisis란 用語가 쓰여진다.

③ 事故 發生의 事情, 狀況, 要因과 같은 것이다. 例를 든다면 火災와 같은 事故를 前提로 한다면, 建物の 構造, 用途, 保管物品, 周圍狀況, 所有者의 注意能力등이 그것이다. 「危險이 增加했다」는 경우의 危險으로 英語의 hazard가 이에 해당한다.

이 危險은 靜態的 危險(static risk)와 動態的 危險(dynamic risk)로 分類되는데, 前者는 地震, 風水災, 火災, 爆發등 社會 經濟의 變動을 原因으로 하는 危險이다.

動態的 危險은 流行變遷, 市場變動, 新式機械의 發明등과 같은 것으로 靜態的 危險이 發生하는 경우에는 個人的으로나 社會的으로도 損失이 되지만, 動態的 危險의 경우에는 個人的으로나 損失이 생기나 社會的으로나 無關하다.

問題는 이러한 危險에 各 個別經濟主體로서 어떻게 對處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지만 企業危險管理는 企業 倒産防止, 各種 企業倒産要因의 科學的 管理에 있다고 할진대 經營管理의 한 部門이라 할 수 있다. 經營管理의 一分野이기 때문에 危險管理도 管理의 一般原則에 따라 實施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經營管理는 企業目標을 有效하게 達成하기 위해서, 企業活動을 計劃, 組織, 指導, 統制하는 過程이므로, 危險管理도 計劃, 組織, 指導, 統制의 各 過程에 따라서 實施된다. 즉 危險管理는 ① 危險處理의 計劃 ② 危險處理의 組織 ③ 危險處理의 指導 ④ 危險處理의 統制란 4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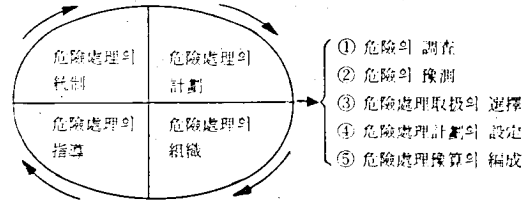
程으로 構成된다.

第1過程인 危險處理計劃이란 企業危險의 調査豫測을 통해서 危險處理手段의 選擇과 立案을 하고, 그것에 豫算의 뒷받침을 하는 일이다.

第2過程인 危險處理의 組織은 危險處理計劃에 依據해서 各種의 危險處理手段을 執行하기 위해 業務分擔, 權限委讓, 組織關係上的 職務調整을 하는 일이다.

第3過程인 危險處理指導는 危險處理計劃을 向해서, 計劃의 解釋이나 判斷을 하고, 그의 意思傳達, 커뮤니케이션, 動機賦與를 하는 것이다.

第4過程의 危險處理統制는 危險處理計劃대로의 危險處理가 實施되고 있는나의 業績記錄 및 評價 分析이다.



[그림-1] 危險管理의 사이클

그것을 制限하는 일이다. 調査하고 把握된 危險을 分析하고, 그 性格, 程度를 檢討해서, 經營에의 影響을 評價하고 推定하는 것이 危險의 豫測이다.

危險處理計劃의 第3過程은 危險處理手段의 選擇이다.

이것은 有效適切한 危險處理手段의 選擇 및 그들 手段의 最善 結合에 관한 意思決定을 뜻한다. 危險處理手段에는 [그림-2]에서와 같이 많은 代替案이 있으나, 그들을 大別하면 危險制御(risk control)와 危險財務(risk financing)로 分類하는 것이 一般의이다.

危險處理 手段의 選擇에 依據해서 達成되어야 할 目標, 作業標準, 節次등이 長期 또는 短期에 걸쳐서, 혹은 各部門 單位에 대해서 策定된다. 이것이 危險處理計劃의 策定이다. 이어, 危險處理豫算의 編成으로 되는데, 이것은 計劃에 依據해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合理的으로 必要한 費用의 計上을 뜻한다.

危險制御란 危險의 發生을 防止하고, 萬一 發生한 危險의 結果인 損害를 極少化시키는 手段

4. 危險處理計劃

危險管理中 가장 重要な 過程은 計劃이다. 危險處理計劃은 危險管理의 最初 過程으로서, 計劃은 現狀의 分析, 豫測, 目的의 設定, 方針의 樹立, 實施計劃의 設定, 豫算의 編成, 標準節次의 決定등으로써 構成된다.

危險處理計劃을 實情에 비추어서 細分化한다면 ① 危險의 調査 ② 危險의 豫測 ③ 危險處理手段의 選擇 ④ 危險處理計劃의 設定 ⑤ 危險處理豫算의 編成이란 過程을 나눌 수 있다([그림-1]參照).

危險의 調査는 危險의 發見 또는 確認을 뜻하며 그 企業이 부닥치는 各種 危險을 把握하고

(危險制御)	事後發生	(危險財務)
(1) 回避(遮斷)		(1) 保有(企業의 不特定한 財産을 擔保로 하는 負擔)
(2) 防止(豫防·輕減)		(2) 準備(準備金設定, 自家保險, Captive)
(3) 分散(分離·分割)		(3) 轉嫁(保險, 共濟, 基金)
(4) 結合(協定·合併)		(4) 相殺(헷징, 製品多角化)
(5) 移轉(下請)		
(6) 制限(責任制限, 去來標準化)		

[그림-2] 危險處理手段

의採用이다. 또危險財務는危險이發生하고,損害가發生한 경우에 必要한資金操作을 미리計劃해서準備하는 일이다. 危險制御는損害發生前의損害防止 또는輕減의技術操作이고, 危險財務는危險이發生하고,損害가發生한 경우에 必要한資金操作을 미리計劃해서準備하는 것이다. 危險制御는損害發生前의損害防止 또는輕減의技術操作이고, 危險財務는損害發生을豫想한損害發生後의資金操作이다. 어느경우나企業은原則적으로費用支出不可避하며, 危險制御를 위한費用支출은制御技術을 얻기 위한金錢의支출임에 대해서 危險財務는企業財務上의金錢留保 또는保證을 위한費用支출이다.

危險制御에屬하는危險處理手段에는 많은 것이 있으나, 回避, 防止, 分散, 結合, 移轉, 制限등이主要한 것이다. 또危險財務에屬하는危險處理手段에도 많은 것이 있으나, 保有, 準備, 轉嫁, 相殺등이 그의主要한 것이다. 危險의保有한 경우, 危險을 몰라서結果적으로保有하고 있었다는少極的保有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危險을豫測해서 무엇인가의對策(準備 또는放置)을講究해서, 積極적으로保有하는 것을 뜻하며, 그것이危險處理手段으로 된다.

어떤對策으로서는, 準備金策定, 自家保險, captive 등의危險準備를 하는 것, 혹은 그대로放置하고, 그負擔을甘受하며危險을冒險하는 일이다. 前者는準備이고, 後者가保有이다.

5. 企業危險의 保險化

企業經營의阻害要因이 되어 있는各種危險의費用化를 함에 있어서 가장優越한方法은, 말할 것도 없이 保險의活用이다. 危險의費用化에는 여러가지方法이 있으나, 危險轉嫁한形態로서의危險費用化는 保險의購入을 통해서實現할 수 있다. 保險을購入하는 것, 즉附保로써 그危險對象의 保險金額 내지 填補限度額과

지의危險을 確定的인 保險料로 代置할 수 있다. 이러한 保險料는 危險費用으로서 損益計算上의費用으로서, 혹은 稅法上의 損金으로서 處理된다.

그러나 無計劃적으로 保險을 購入한다면 合理的인危險의費用化를 할 수 없으며 危險費用을浪費하는結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付保되는對象(保險目的), 被保險利益, 付保危險, 保險種目, 保險金額 내지 填補限度額, 保險期間, 控除免責額, 填補範圍등에 대해서 充分한 專門的檢討가 必要하다. 保險管理에 관한 專門的檢討가 危險管理의 中心部分을 이루고 있다.

企業을 에워싼危險은 經營環境의 變化와 더불어, 그의種類, 發生頻度, 規模를 增大시키고 損害額을 巨大化시키고 있다.

企業危險을 動態的危險과 靜態的危險으로 나누는 경우, 前者에 對應하는 保險은 극히 적으며 國營保險으로서의 輸出保險정도이다. 이에 반해서 靜態的危險에 對應하는 保險은 種類도 豊富하고, 그內容도 複雜多岐하다. 따라서 危險管理로서의 保險管理中心은 靜態的危險의 付保對策이 된다.

靜態的危險에 對應하는 保險은 크게 나누어 私保險인 民營保險과 社會保險이 된다. 社會保險은原則적으로 強制保險이므로, 企業의 保險管理上 自由裁量의 餘地가 적다. 따라서 保險管理로서 主要問題가 되는 것은 私保險이다. 私保險은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으로 分類되지만 企業의 保險管理로서 第一義的 重要性을 갖는 것은 역시 損害保險이다. 왜냐하면 損害保險은 企業保險性이 強하고 生命保險은 家計保險性이 強하기 때문이다.

一般企業에 打撃을 주는 것으로는 火災, 爆發, 地震, 風水災, 騷擾, 爭議, 組立事故, 電氣的, 機械的 事故, 自動車事故, 陸上運送事故, 海上事故, 航空事故, 盜難, 유리事故, 漏出등이지만 火災가 가장 큰 打撃을 주는 事故로 보여진다.

6.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

政府는 10年前인 1973年 2月6日 法律 第2482號로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을 公布한 바 있다. 이 法의 目的은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産上의 損失을 豫防하고 迅速한 災害復舊와 人命被害에 對한 適正한 補償을 함께 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層以上の 建物」과 「國有建物·教育施設·百貨店·市場·醫療施設·興行場·宿泊業所·工場·共同住宅·

其他 多數人이 出入 또는 勤務하거나 居住하는 建物」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物인 「特殊建物」은 그 第5條에서 保險加入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特殊建物主人 企業이 갖는 危險管理와 그들이 갖는 社會的 責任을 다 하는데 一助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10年을 넘어 11年을 맞는 이 法律 公布에 즈음하여 이 立法趣旨가 充分히 살려질 수 있도록 韓國火災保險協會 任職員 뿐만 아니라, 特殊建物主는 企業 危險管理의 一環策으로서 應分の 活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신 제 품

빌딩 자동 제어 장치

최첨단 자동 설비분야인 빌딩자동제어장치가 금성통신에 의해 개발됐다.

빌딩자동제어장치는 현장설비의 시동과 정지 및 이상상태를 알려주는 상태감시기능, 현장의 온도 습도 압력등을 지시해주는 에널로그 감시기능,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진단기능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기능을 갖추고 있어 1명의 담당자에 의해서도 기계 전기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등의 모든 빌딩운영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제어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신행 건물에 필수적인 장비이다.

금성은 특히 컴퓨터를 응용한 중앙감시반을 자체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종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중앙감시반에 비해 시스템당 종래가격의 4분의 1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국산개발품을 공급하게 됐다.